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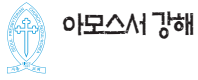
2008년도 표어

교회여,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 세대를 품는 교회(요10:10)

행동지침

- 1. 민족 복음화의 산실되어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실현하자!
- 2. 신앙의 대잇기 모범을 보이자
- 3. 교육에 대한 국가적 비전을 제시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아모스서 강해

하나님 백성의 죄

(아모스 2:4-16)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고 예언 성취는 정확한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



이스라엘과 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 율법 없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다가 무서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의 내용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지만 한 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고 탄압한 인권유린의 죄입니다. 이 죄는 곧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탄압이요 하나님 권위에 대한 도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죄는 무엇입니까?

1. 율법을 무시한 죄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2:4).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판단합니다. 율법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양심으로 판단하시지만 율법을 주신 자들에게는 율법을 따라 판단하십니다. 율법은 고발자 노릇을 합니다.

율법의 자로 재어보면 죄가 큰지 작은지, 무거운지 가벼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저울과 자막대기로 우리의 양심도 생활도 믿음의 열매도 재보십니다.

그런데 유다는 율법을 멸시하고 그런 자막대기는 필요 없다고 율법을 어겼습니다. 어겼다는 말은 모자란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도 받았고 은혜와 양심의 법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자연의 법도 받았으니 누구보다 많이 받은 자들입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은 것이 요구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하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수없이 맺어야 합니다.

2. 우상에 미혹된 죄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2:4).

유다의 또 다른 죄는 우상에 미혹된 죄입니다. 유다는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우상을 좇았습니다.

성경을 거부하면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되며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곧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됩니다. 결국 유다의 죄는 율법을 무시하므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을 따라간 죄입니다.

3. 도덕성의 부패

이스라엘이 범한 죄는 도덕성의 부패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도덕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1) 경제적 이기심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

를 팔며”(2:6).

판다는 말은 배반한다, 또는 속이고 이용한다는 말입니다. 적은 경제적 이익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눈물 흘리게 하고,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물질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이 같은 죄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2) 정당성의 부인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2:7).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를 착취하며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는 법을 사용하고 이웃을 돕는 데는 법을 무시했습니다. 가난한 자, 연약한 자의 양심과 그들의 정당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3) 부도덕한 죄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2:7).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는 창기들이 수종 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제사를 하러 왔다가 한 창녀에게로 가서 잠을 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힌 죄입니다(레 20:11). 오늘날 성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육이 거룩하기를 요구하십니다.

4. 하나님의 심판

“또 너희 아들 중에서 선지자를, 너희 청년 중에서 나실인을 일으켰나니”(2:11)

하나님은 일찍이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과 광야에서 인도하신 일,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시고 땅을 차지하게 하신 일, 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선지자를 세우고 나실인을 일으켰던 모든 자비를 상기시키십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별된 자로서 언약을 파기한 그들에게 혹독한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확실하고 예언 성취는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우상에 미혹되지 말며 부도덕한 자리에 빠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도 힘써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돌아보고 자신을 살피며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TV : 케이블 CH 42(CTS, 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주여, 우리 기도 들으소서! 아가페 타운 건축 헌금드려

6월29일(주) - 주일예배 시간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뜻을 이루도록 아름다운 사역을 맡기셨다.

이 땅의 소외된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비전을 세우고 사랑의 집 건립을 간구하였더니 하나님은 더 큰 사명을 부여하시고자 ‘아가페 타운’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에 10,227 평의 부지와 건물을 허락하셨다.

우리교회는 허락하신 이곳에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6월29일 주일예배 시간에 건축헌금을 드린다. 이미 홍해작전 기간 동안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국가와 교회와 가정의 홍해를 앞에 놓고

기도할 때 특별히 아가페 타운 건립을 위한 깊은 기도를 함께 드리고 있으며, 이에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게 된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는 받은 사랑을 실천하고 나누게 되는 것이다.

내가 가진 작은 것 내어놓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교회와 가정에 임하는 것을 확인하는 모든 성도, 가정 되시도록 기도한다.

한편 우리교회는 기존 본관 및 기숙사 건물을 금년 여름수련회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6월중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공사시작과 안전을 위하여도 함께 기도하기 바란다.

홍해작전 5행시 공모

6월25일(수) 홍해작전 마지막 날 마감

2008 홍해작전이 은혜 중에 계속되고 있다. 홍해작전 본부는 홍해작전을 모든 성도들이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홍해작전 5행시를 공모하고 있다. 홍해작전 5행시는 ‘아가페타운’ 혹은 ‘사랑의 마을’ 다섯 글자로 시작되는 시를 적어내면 되고 제출 시 본인의 이름, 교구,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시상은 6월29일(주) 홍해작전 승전 감사예배 시간에 하게 되며 대상-1명, 금상-1명, 은상-1명, 동상-1명을 시상한다. 5행시 응모작은 본당 2층 로비에 비치된함에 넣으면 된다.

한편 이번 홍해작전에 가장 열심히 교구를 시상하기로 하고, 현재까지 1, 3, 5, 13, 14교구가 선두다툼을 하고 있다. 이번 홍해작전에 가장 열심을 낸 2개 교구 역시 홍해작전 승전감사예배 시간에 함께 시상하며, 가장 열심히 교구에는 승전기와 부상을 드린다. 또한 20일간 모든 가족이 빠짐없이 출석한 가정에는 기념시계를 드린다. 열심히 기도하여 응답받고 상도 받는 홍해작전이 되도록 기도한다.

미리암 여성합창단 연습시작

6월17일(화) 첫 연습

서울교회 부설 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 산하에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에 이어 ‘미리암 여성 합창단’이 창단되어 6월 17일(화)부터 첫 연습에 들어간다. 소규모 정예화 된 여성 선교 합창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후 첫 밤 감사 찬양을 드린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이름을 딴 것으로 앞으로 병원, 구치소, 및 교회 선교가 필요한 곳에 언제든지 달려가 찬양을 드리는 일을 맡을 것이다.

한편 무지개 어린이 합창단은 8월 첫 주 찬양예배에 첫 선을 보이기 위해 맹훈련 중이다.

7월14일부터 수화교실 초급반, 중급반 개강

- 수강 기간 : 7월14일~ 11월30일(주일)
- 초급반 장소 : 606호 (시간: 오후1시~2시30분, 강사: 박은영 선생)
- 중급반 장소 : 606호 (시간: 오후3시30분~4시45분 강사: 노경섭 선생)

금주의 성구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출애굽기 13:22)

By day the LORD went ahead of them in a pillar of cloud to guide them on their way and by night in a pillar of fire to give them light, so that they could travel by day or night. (Exodus 13:22)

한국교회는 세계교회가 성경으로 돌아오게 하는 견인차

- 이종윤 목사 미래한국신문과 인터뷰 -

미래한국신문 303호(6월14일자)에 이종윤 목사 인터뷰 기사가 전면 게재되어 이를 발췌하여 싣는다.

이종윤 목사는 Old Church인 프랑스 교회와 New Church인 몽골교회의 공통점은 그들 모두가 영적 기갈상태에 있으며 한국교회의 또 하나의 선교지로 멘토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결국 신학의 문제로 귀착되고 있는 세계교회의 문제는 성경을 떠나 인본주의와 이성주의에 빠져 자멸의 길로 빠져가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숫자적 성장을 자랑하는 한국교회는 질적 성장이 요청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환난은 감수해야 되겠지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교회라면 한국교회는 사회에서 소금의 역할을 못 다한 것을 통회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한다.

오늘날 계속되고 있는 촛불시위의 문제보다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원칙과 철학이 있는 정치 지도자가 되도록 교회는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KIMCHI 신학세미나를 통해 프랑스 교회가 새벽 기도회를 수입해 가 프랑스에 조용히 영적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몽골교회에는 Church of Mongolia 즉 몽골 단일교단 설립에 박자가 가해지고 있는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크게 감사해야 할 일이라고 말을 맺었다.

2008 인도단기선교단 이렇게 활동하게 된다

8월4일(월)-12일(화) · 인도 뽀네 지역에서

우상으로 가득 찬 죽은 영혼의 나라 인도로 파송되는 8기 단기선교단 일정이 확정되었다.

인도단기선교단(단장 이영기 장로)은 8월4일(월) 출국하여 인도 뽀네 지역에서 현지 선교사들을 도와 전도활동을 펴고 12일(화)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게 된다.

단기선교단은 현지에서 조범연 선교사가 섬기고 있는 신학교를 견학하고, 기독교 학교를 방문, 예배를 드리고, 농아인 선교회와 고아원을 방문하는 한편 노방전도와 축호전도를 실시하고 시골 교회도 방문하는 등 다



양한 선교활동을 펼 예정이다.

한편 인도단기선교단은 총 22명으로 구성되어 지도-정수길 목사, 단장-이영기 장로, 총무-오유식 집사, 서기-박희래 집사, 회계-최금숙 집사, 도고팀-이영숙 권사, 의료팀-김영주 집사, 미용팀-곽숙 권사, 아트팀-최미아 권사, 위십팀-차신영 선생(대학부)이 섬기게 된다.

인도로 파송되는 단기선교단이 인도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올바르게 전하고 많은 열매 맺고 귀국하도록 기도한다.

홍해를 건너며...

하늘에 속한 사람들

처음 만난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회복하면서... 자유, 평화, 정의로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

유관모 집사 (2교구)



6월에 기적을 몰고온 홍해작전은 “생명을 잉태하라 다음세대를 품는 교회”라는 주제로 건너는 말씀과 기도 작전이다. 새벽마다 원근 각처에서 가족별 다락방별 부서별로 하나되어 함께 나아가는 기도행진이다.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동안 부끄러웠던 안목의 정육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육으로 영적 방황의 시간들을 홍해 깊이 던져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바른 신앙인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결단의 시간이다. 새벽마다 감사와 회개의 눈물로 홍해를 건너며 첫사랑을 회복하는 새 생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앞으로는 안수 집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여 주어진 직임에 충성을 다 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리라 다짐해 본다. 남은 홍해작전을 통해서 국가와 민족이 어려운 이때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 모든 교우

들이 우리 서울교회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 드린다.

김신영 집사 (13교구)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의 미명을 뚫고 주님의 전으로 발걸음을 재촉한다. 올해도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기 위한 홍해작전이 시작되던 10일째 맞이하였다. 일곱 가지 기도제목과 서울교회 아가페타운 건립을 위한 다섯가지 기도와 가정의 홍해, 교회의 홍해, 나라와 민족의 홍해를 위한 기도가 절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권사로 피택된 이즈음 기도의 어머니로, 진정한 의미의 권사로서의 소양을 갖추어야 할 시점이기때 이번 홍해작전은 지난 어떤 해보다 더욱 새로운 마음으로 임하게 된다. 첫 주 ‘자유’에 대해 김철홍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그동안 메말라 있던 나의 심령이 뜨겁게 변화되고 주님을 향한 사랑과 섰는 영적 충만함을 받는 소중

한 시간이 되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사랑과 구원의 사랑을 새롭게 회복하면서 감사드린다.

이번 홍해작전 기도회에서 주시는 자유, 평화, 정의에 대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기도, 전도, 선교, 구제 말씀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서 위기에 처했을 때 환경에 개의치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며 순종했더니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 홍해를 갈랐듯이 우리 앞에 놓여진 홍해를 기도로 극복할 때 약속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뤄주시리라 확신한다.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사랑의 참의미를 깨닫고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 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앞으로 10일간 남은 기도 행진을 통해 회개와 감사의 결단들이 열매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한다. 나 역시 이번 홍해 작전에 특별한 기도제목과 가지고 있다. 아마도 홍해를 건너면 하나님 앞에 승리의 개가를 울릴 수 있으리라.

주님을 사랑하면

허숙 권사 (11교구, 임마누엘찬양대부대장)



홍해작전 6일째가 되는 지난 수요일은 임마누엘 찬양대가 주력부대로 새벽 찬양을 드리는 날이었다. 대원들이 많이 나와주기를 기도하며 대원들이 사실 요구르트를 사려고 마트에 갔다. 몇 명이나 나올까... 대원의 대부분이 청년들이라 출석이 들쭉날쭉이다. 40개를 장바구니에 담으며 ‘아나 믿음이 적어’ 하며 10개를 더 담았다. 그런데 53명이 나왔다. 하나님의 능력은 언제나 나의 믿음을 뛰어 넘으신다. 김철홍 목사님이 서시는 마지막 날이었다. 성도의 ‘자유’에 대해서 어떤 결론의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시작했다. 말씀을 여시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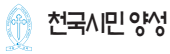
목사님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물으신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신 것처럼, 아들 이마에 난 작은 상처 때문에 분노하다가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눈물이 나서 운전을 못했다고 하시는 목사님,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은채 어느 날 보니 목사가 되어있더라는 고백을 들으며 나아말로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얼마나가 아니고 사랑하고 있거나 하는지 눈물이 나기 시작했다.

기억이 생생하다. 88년 가을 성찬식때 나는 주님을 만났다. 성찬떡과 잔을 마시며 나 같은 것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감사해서 눈이 툭툭 붓도록 울고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주셨다. 그렇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셨다. 그때 나는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다.

그리고 20년이 흐른 지금, 그때의 그 사랑은 어디로 갔을까?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나름대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면서도, 찬양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 늘상 미진했던 그 무엇, 그것의 실체는 하나님 사랑의 부재였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하면서 속이 상했고, 때때로 자존심이 상했고, 찬양대원이 몇 명이나 올지 혹시 창피나 당하지 않을지 걱정 했던 것이다.

그 날 나는 주님이 아직도 나를 버리지 않으신 것을 알았다. 그 사실이 또 감사해서 나는 20년 전 그날처럼 눈이 툭툭 붓도록 울었다. 그리고 기도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또 식어져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해달라고 조르기만 했는데

홍주연 성도 (새가족부)



2008년 1월 20일, 대치동으로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 모든 것이 낯설고 불안했지만 스스로 서울교회를 찾아갔던 그 날은 참으로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예배 후 새가족부 모임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의 진솔한 삶과 신앙고백을 함께 나누면서 큰 위안과 힘을 얻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새록새록 피어올랐습니다.

목사님 말씀과 친교활동을 통해 보고 들은 대로 "하루 5번 기도하기(아이 깨울 때, 아침, 점심, 저녁, 아이 잠들 때)와 "교회활동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다락방, 주부대학, 루디아 모임)"를 실천했습니다. 그랬더니 새가족부 교육을 마치는 8주 동안에 제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첫째로 기도 내용이 "하나님 ~ 해주세요" 에서 "하나님 ~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뭔가를 해달라고 조르기만 했는데 어느새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교회활동을 통해 성령 충만해짐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주일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2~3일 교회에 나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작은 일이라도 교회와 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참여하니 신앙생활이 더욱 신나고 즐거워졌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서울교회로 이끌어 주님을 영접하고 좋은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삶 속에서 이렇게 은혜 넘치는 시간과 소중한 기회를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춧돌과 기둥이 없는 집에...

연경남 성도 (새가족부)



결혼 전, 시부모님께 첫 인사를 드리기 전에 세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남편의 권유로 세례를 받은 지 벌써 18년이 지났습니다. 처음 몇 년은 종교를 학문적인 호기심의 대상으로만 바라보고 비판적인 시각을 쉽게 버리지 못하였습니다. 어느 날 모태신앙인인 남편에게 있어 신앙은 결코 논쟁거리가 될 수 없음을 알고 겨우 주일 예배에는 순응하게 되었지만, 그래도 그 긴 시간 동안 제 마음 속엔 별로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오로지 기도와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시부모님의 모습 또한 오히려 반감을 갖게 했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돌보지 못하고 직장 다니며 공부하는 것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더욱이 연로하신 친정어머님은 딸 대신 외손자를 키우느라 뼈골이 빠져 나가시는데, 한참 더 젊으신 시어머님은 교회 봉사로 바쁘셔서 도움을 못 주시니 그것이 모두 교회 때문이라고 생각한 거지요.

서울로 이사 와서 교회에 등록한 첫날 서울교회의 가족이 되려면 새가족부를 8주 동안 반드시 거쳐야 함을 알고 사실은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의무감에 부담스러워 울길까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따

뜻하고 다정다감한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 속에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인의 자세는 어떠한지 하는 지부터 배우면서 이제까지 내게 무엇이 결핍되어 있었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8주는 처음으로 제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권속이 되고자 하는 의식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지난 18년 동안 주춧돌과 기둥이 없는 집에 문을 달고, 장식을 하려하니 집이 완성될 리가 없었겠지요. 체계적인 믿음의 과정을 거친 분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기본이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까지 그러한 최소한의 것도 알지 못하고 예배에만 참석했고, 무엇보다도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하나님을 받아드려야 할 만큼 순수하지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가족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속에서 자녀에 대한 소망을 기도로 들려주시는 것이 잔소리나 사교육보다 훨씬 효과적이었고, 무탈하게 비교적 성공적으로 살아온 우리 부부의 삶이, 모두 부모님의 새벽기도와 하나님의 돌보심 덕분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18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을 마음과 머리로 동시에 받아들이게 해주신 서울교회와 인연을 맺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특별찬양

오늘저녁 찬양 예배 특별순서는 모처럼 테너 독창으로 드러지는 순서를 갖는다. 미국 텍사스주에 있는 Christian University의 교수로 계신 김산기 박사의 노래로 멘델스존 작곡의 오라토리오 엘리야 중에서 '참담으로 나를 찾는 자는' 외에 2곡으로 찬양 드린다.

김산기 교수는 템플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고 체코의 프라하가극장 주연가수로 활동한바 있다. 피아노 반주에는 장지슬 선생이 수고한다.

2008 성경암송대회

금년 성경암송대회는 예선을 10월 19일(주)에 본선을 10월 24일(금)에 갖는다. **암송범위는 베드로 전서 1-5장 전장이다.**

등정

■ 이종윤 목사는 15일(주일) 오정식 목사(중곡동 통일교회) 위임예배 설교를 한다. 19일(목) 6.25 상기 기독교장령 구국성회 설교를 한다.

■ 승진: 12교구 김용호2 집사 - 샘표식품 부사장

■ 득녀: 11교구 송영준 집사, 이영선 성도 가정

■ 주간식당봉사: 바울 선교회(6.15)

엘리아선교회(6.22)

■ 금주의 식사 : 박창희 권사 가정 (자녀 결혼 감사하며) 교회제공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일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일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 올해 안에 한 가정 이상 전도하게 하소서.
- 아가페 타운 건설, 은혜롭게 이루어지도록
- 6.6-25까지 열리는 흥해작전 승리를 위하여
- 정국이 안정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을 위하여

교회오시는 길

